

TV 4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다섯 남자의 어머니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1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10 쾌도난마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40 뉴스와이드	00 여풍당당 55 바른말 고문말(재) 00 KBS 뉴스12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위기를 넘겨(재)	00 주말드라마 <금나와라 옥떡>(재)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00 웰컴 투 돈빌드(재)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강만족 세상은 맞았다(재) 35 후투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정오뉴스 20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에너지 유포피아를 꿈꾸다>	00 SBS 12 뉴스 30 테이스페셜(재)
1 00 웰컴 투 돈빌드(재)	00 KBS 갈작선 (아이리스)(재)	00 비타민(재)	15 MBC 스포츠 제15회 MBC C&I 청소년 골프 최강전	30 와이드커넥션
2 10 토티링평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VJ특공대(재)		00 SBS 뉴스 10 간성클러닉(재)
3 20 적연적설	00 노인, 세상에 말을 걸다(재) 20 히든 챔피언(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강만족 세상은 맞았다(재) 35 후투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3시 뉴스 10 똑똑 아저씨 베스트	10 금요일엔 수다(재)
4 30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을 잇는 담쟁이)	00 최강합체 미스마스터 30 TV 유치원	00 어린이 동물구조대 30 또르르 방울이 친구들	00 매일얼마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두리몽실 몽계공화국(재) 30 명랑직장백서<열정시대>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세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보 1~2부	20 고향을 부탁해	05 세상살이 권유카
7 20 별들의 국가대표2(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떠들썩 <오로라 공주> (웃단이 주의보)
8 3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2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황금 카메라	55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 30 컬투의 배란다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특별기획드라마 <길과 꽃>	00 수목미니시리즈 <여왕의 교실>	00 드라마스페셜 (나의 목소리가 들려)
10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파노라마 (세상을 바꾼 삶 별스 민델라) 50 콘서트 필?	00 특별기획드라마 <길과 꽃>	00 수목미니시리즈 <여왕의 교실>	00 드라마스페셜 (나의 목소리가 들려)
11 10 명랑해결대(재) ①:20 이영돈PD 택거리 X파일(재)	00 KBS 글로벌24 40 스포츠 하이라이프 ①:00 KBS 뉴스 10 KBS 갈작드큐멘터리 (재)	40 세상의 모든 다큐 <우리가 몰랐던 인도양여행>	40 MBC 뉴스24 ①:00 스포츠 다이아리 15 MBC다큐프라임 <그린 에너지에 도전하는 사람들>	40 SBS 토론광장
12				

“좋은 약은 쓰다는 것을 가르치는 중이죠”

고현정, MBC ‘여왕의 교실’ 카리스마 여교사 열연

“몸에 좋은 약이 쓴 법이 아닐까, 마여진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연기하고 있어요.” MBC 수목극 ‘여왕의 교실’에서 악독한 교사 마여진 역할을 맡아 열연 중인 배우 고현정은 브라운관 뒤에서는 누구보다 자상한 선배의 모습이었다.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여왕의 교실’ 기자간담회에서 고현정은 “너무 자극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아이들이 격정되지만, 다들 경향이 많은 배우여서 상처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드라마가 원작인 ‘여왕의 교실’은 카리스마 넘치는 여교사 마여진과 이에 대항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1년에 걸친 ‘투쟁’을 그린다.

마여진은 냉혹함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마녀 같은 교사’로 그려진다. 아이들을 성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기본이고 치한 발을 주거나 사생활 감시까지 서슴지 않는다.

“단순히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고 아이들끼리 사이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마여진이 독한 약을 주지만 잘 받아들이면 비타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제작발표회에서 화제가 됐던 ‘아이들에게 배울 것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그렇게 표현했다. 천진함이나 근성처럼 아이들로부터 배울 것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제작발표회 당시보다 낯선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에 그는 “얼마나 빠졌는지는 나중에 따로 달려드리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고현정은 최근 수영장 장면 촬영을 앞두고 여자 아역 연기자들의 생리 주기를 배려해달라고 요청해 제작진이 촬영 일정을 조정했다. 남자가 대부분인 스태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다들 얘기를 못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어요. 저 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게 곤란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배려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찍어야 하니까요.”

전체 16부작인 드라마는 이제 6회까지 방송됐다. 드라마는 아직 한자릿수 시청률에 머물고 있어 고현정의 작품치고는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시청률은 사실 제가 좀 미안하죠. 하지만 드라마가 무리외어가 는 단계니까 나아지리 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애정을 갖고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 극에 몰입하려 노력할 뿐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현정

“준국이 덕에 악역 갈등 풀었어요”

정웅인,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남다른 존재감 과시



정웅인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배우 정웅인(42)의 존재감이 남다르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민준국을 연기하는 그는 매 장면에서 보는 이를 긴장하게 한다. ‘신스틸러’(scene stealer)란 말이 어색하지 않다.

지난밤 진행된 강도 높은 촬영에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눈빛 만은 살아있었다. 밤새 몸 조르고 때리는 장면을 찍었다며 빼근해진 목을 가다듬는 모습에서는 피곤함보다 뿌듯함이 비쳤다. 제 역을 만난 배우의 뿌듯함이었다.

주변 반응을 묻자 “아이들이 된 것 같다”며 웃었다. “연락이 안 오던 사람들에게도 ‘드라마 잘 보고 있다’는 연락이 오고 연극 지방 공연에서도 첫 등장 장면엔 박수와 환호성이 나온다”며 뜨거운 반응을 실감하는 듯했다.

지난달 초 첫선을 보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방송 2회 만에 동시간대 시청률 정상에 등극한 데 이어 수도권 시청률 20%를 넘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인기의 배경에는 탄탄한 대본과 배우들의 호연이 있었다. 법정 드라마와 로맨스, 스릴러 장르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캐릭터를 심부름 살린 배우들의 연기는 ‘월매드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정웅인은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에 관계된 드라마가 만연하지만 우리 드라마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면서도 로맨트 코미디와 스릴러를 가미했다”며 “각 장르의 매력에 잘 살려 반응이 얻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만나기 전 정웅인은 1년간 공백기를 가졌다. 15년 넘게 실 새 없이 달려왔지만 해소되지 않는 갈등 때문이었다. 악역에 대한 갈등이었다.

“많은 배우가 악역을 꿈꿔요. 장동건, 현빈 이런 친구들도 다 악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화 ‘케이프퍼어’나 ‘더 펜’을 보면서 악역을 꿈꿔요. 그렇지만 악역이 쉽지가 않아요. 미묘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죠.”

안 오던 사람들에게도 ‘드라마 잘 보고 있다’는 연락이 오고 연극 지방 공연에서도 첫 등장 장면엔 박수와 환호성이 나온다”며 뜨거운 반응을 실감하는 듯했다.

지난달 초 첫선을 보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방송 2회 만에 동시간대 시청률 정상에 등극한 데 이어 수도권 시청률 20%를 넘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인기의 배경에는 탄탄한 대본과 배우들의 호연이 있었다. 법정 드라마와 로맨스, 스릴러 장르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캐릭터를 심부름 살린 배우들의 연기는 ‘월매드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정웅인은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에 관계된 드라마가 만연하지만 우리 드라마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면서도 로맨트 코미디와 스릴러를 가미했다”며 “각 장르의 매력에 잘 살려 반응이 얻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만나기 전 정웅인은 1년간 공백기를 가졌다. 15년 넘게 실 새 없이 달려왔지만 해소되지 않는 갈등 때문이었다. 악역에 대한 갈등이었다.

“많은 배우가 악역을 꿈꿔요. 장동건, 현빈 이런 친구들도 다 악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화 ‘케이프퍼어’나 ‘더 펜’을 보면서 악역을 꿈꿔요. 그렇지만 악역이 쉽지가 않아요. 미묘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죠.”

EBS

06:00 건강할 아침	09:15 두부부바 눈보리	14:00 지식재널e	18:30 곤
06:10 한국기행 <지리산 둘레길>	09:30 피들리팝	14:05 버블버블 언어친구들	18:45 정글북
06:30 미래 직업, 또는 직업 <공룡의 건강도우미! 헬스 트레이너>	09:40 개미	14:35 몬스터 수화나라	19:00 EBS 뉴스
07:00 곤	09:50 지구를 지켜라	15:00 제로미오의 모험	19:25 지식재널e
07:15 정글북	10:10 세계대미기행 <적도의 섬, 솔라헤시 4부 - 물의 축복, 아생의 보물>	15:30 비두와 친구들	19:30 세계의 산
07:30 마이의 모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한서연의 열기충전 기준 돌는 밥상 - 가지 치즈 구이와 노랑 무침>	15:45 마이의 모험	20:2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7:45 부릉! 부릉! 부루미즈	11:20 부모	16:00 당동영 유치원 1~2(재)	20:50 세계대미기행<규슈>
08:00 당동영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16:20 피들리팝	21:30 한국기행 <남해>
08:20 시계마을 타기록	12: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용서>	16:45 충추는 꿈 공예(재)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용서>
08:35 꼬마버스 타요	13:05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7:00 방구대장 뽕이(재)	22:45 극화제업 <동상극 2부>
08:50 춤추는 곰 풍야		17:10 시계마을 타기록(재)	23:15 EBS 인문학 특강
09:00 방구대장 뽕이		17:25 부릉! 부릉! 부루미즈(재)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1~2
		17:40 생방송 특목 보너스 1~4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 내공 남남 <과학 3-1>
01:50 내신 6강 <수학II>	12:30 박복의 이수리 만나는 경제 <문학I>	07:30 EBS 생화영어	15:50 <과학 4-1>
01:40 포스 <문학II>	13:00 탐스런 <생명과학II>	08:0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강좌	16:20 <과학 5-1>
02:30 <적분과 통계>	14:00 <지구과학II>	08:30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시험 대비	16:40 <과학 6-1>
03:20 <기하와 벡터>	15:00 인터넷 수능 <사회II>	09:10 TV 중학 <국어II>	17:20 초등개념 잡기<사회>
04:10 <수학II>	16:00 EBS N제 <사회문화>	09:50 <수학II>	18:00 동물대탐험 <구리구리 명명>
05:00 <수학II>	17:00 인터넷 수능 <듣기II>	10:30 중학개념 끝장내기 <한문>	18:30 수학의 원리 마태미티카
05:50 탐스런 <물리I>	18:00 EBS 수능연성 <수학I A형>	11:10 TV 중학 <도덕II>	18:40 어린이 역사드라마 <점프>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특혜의 기본I>	19:00 <수학I B형>	11:50 TV중학 2학년 <수학II-1>	19:20 숲 친구 피파틀라
07:30 <Basic Grammar>	21:00 <미적분과 통계기본>	12:30 <과학II>	19:35 모이모아 <도덕3>
08:20 탐스런 <화학I>	21:50 지식재널e <수학II>	13:10 TV중학 3학년 <도덕3>	20:00 원초보 중학영어
09:10 <생명과학I>	22:00 <생명과학I>	13:50 변형한영어	20:40 초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0:00 <지구과학I>	23:0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물리II>	14:30 한글이 아호	21:20 통일 신공 <사회II>
10:50 <물리II>	23:55 배움너머	14:50 뽕이랑 남남	22:40 TV중학 3학년 <수학3-1>
		15:10 범영이 팽팡!	23:20 어린이 드라마 <별들의 합창>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대와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48년생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서있다. 60년생 시간의 안배를 잘 해야 실행에 차질이 없다. 72년생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84년생 명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11, 72	午	42년생 평소보다 상당히 줄여줄 것이다. 54년생 진중하게 기다리며 미래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66년생 모든 것을 차지 한 후 수습해 놓고 보자. 78년생 멀리서 들려오는 우렛소리이니 놀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2, 90
丑	37년생 앞면에서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49년생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행할 일이다. 61년생 연유하는 근원을 알게 되리라. 73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의 역할이 크다. 85년생 협조자의 배려에 의해 일취일성하라. 행운의 숫자 : 63, 28	未	43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55년생 경사가 급한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다. 67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79년생 지극히 상대적 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1, 94
寅	38년생 징후가 현상화 될 수도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50년생 초심의 생각이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다. 62년생 희망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리라. 74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 해왔는지 돌아켜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0, 51	申	44년생 무거운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겠다. 56년생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68년생 남을 의심하며 말하게 행하는 모습이다. 80년생 누가 얼마나 강인하느냐에 따라 판기를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35
卯	39년생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흥이 된다. 51년생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백 번 낫다. 63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행운이 따라리라. 75년생 이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7, 07	酉	45년생 부자연스럽겠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57년생 재복이 자라나니 진중하게 대응하면 유요하다. 69년생 코스를 이탈하면 고생길만 환할 뿐이다. 81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1, 49
辰	40년생 사정을 다 들고 나면 수궁 하리라. 52년생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원할해질 수 없다. 64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성숙한 열매가 맺히는 모습이다. 76년생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85	戌	46년생 눈여겨왔던 것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58년생 서로의 마음이 일치하니 의사 표시만 하면 된다. 70년생 새틀게 펼쳐나가는 쾌거가 있다. 82년생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17, 58
巳	41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점진적이어야만 하느니라. 53년생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과 요령이 필요한 때이다. 65년생 실정을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77년생 상대의 모호한 태도나 반응으로 답답할 수다. 행운의 숫자 : 88, 92	亥	47년생 마음이 상해서 의욕을 상실 할 수도 있다. 59년생 방도는 좋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71년생 가보아만 남담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간절하게 바라다라도 내색할 때가 아니로다. 행운의 숫자 : 59, 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탈북 모자의 갈등과 화해	웃음과 감동을 담은 카메라	무용 소녀의 사춘기 극복 방법
----------------------	-----------------------	-------------------------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EBS TV·밤 9시50분) = ‘꽃게비 아들과 탈북 어머니’ 편. 북한에 삼한 기근이 들었던 1997년, 살기 위해 다섯 살 아들을 북한에 남겨둔 채 중국으로 갔던 어머니 이선금씨, 그러나 인신매매 단에게 속아서 간 중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세 차례의 복수 등을 겪으며 고생한 이선금씨는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5년 전 아들을 탈북 시키고, 아들과 함께 살 생각에 마냥 행복했던 어머니, 그러나 아들 김벌씨는 아직도 다섯 살 때 자신을 두고 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크다. 한국에 와서도 홀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탈북 청소년 복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라오스에서 재회한 어머니와 아들. 이들은 이념 문제를 숨어살다시피 해온 소수 민족 동족을 만나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게 된다.

황금 카메라(KBS2 TV 오후 8시50분) = 전 국민 스마트폰 시대, 영상의 힘을 보여주는 ‘황금 카메라’. 장동민의 ‘찰카 코리아’에서는 대한민국을 들쭉이게 만든 촛꾼들의 영상부터 전설의 낙남영사까지. 시청자가 모두 공감하고 웃을 수 있도록 최고로만 선한 작품 10여개를 보여준다. ‘내 멋에 산다’에서는 하루 24시간 외박자 전거와 사는 남자를 소개한다. 앓으나 서나, 자나 깨나, 주인공의 머릿속엔 오직 자전적 생각 뿐. 그것도 외박 자전거다. 9년 전, 허리 디스크로 눕지도, 서지도 못했던 66세 이광식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자전거 타기로 수술 없이 디스크를 완치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 수업을 가르칠 정도로 수준급에다가 수제자까지 두었다고 하니... 과연 주인공의 자전거타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내마음의 크레파스(SBS TV 오후 5시35분) = 171cm에 작은 얼굴, 늘씬한 몸매에 카리스마를 겸비한 무용 소녀. 서울 화곡동에 살고 있는 중3 소녀 하영(16)이다. 비록 무용을 시작하지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타고난 신체와 꾸준한 노력으로 올해 처음 출전한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 유망주다. 털털한 성격과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학교에서는 인기 만점 여중생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끼와 매력을 발산하는 무용 소녀다. 이런 하영에게 최근 찾아온 사춘기. 짜증이 부족 늘었다. 계속 되는 고된 연습,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체중관리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진 건 바로 아빠의 관심을 받는 것이다. 곧 있을 마지막 콩쿠르를 준비해야 하는 하영. 자신에게 찾아 온 사춘기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